

순창 진입로 시원하게 확 뚫린다

순창군, 39억 투입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24일 착공 인도 확·포장 공사도 시행 보행자 불편 최소화

순창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24일 착공해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순창읍 중심인 중앙로 양방향 1.2km 구간과 교육청 사거리 좌우측 130m 구간(순창읍사무소 방향)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선 및 통신주, 전선 등을 정리해 지하에 매립하는 것으로 39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중앙로 서쪽(순화리 방향)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먼저 시행되며, 인도 확장·포장공사 등이 뒤이어 시행돼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확대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는 한편 도로 폭을 3.25m에서 3.0m로 축소해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최근 관계기관 4곳과 최종 간담회를 갖고 협업체계 구축 강화와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 대상지인 순창읍 중앙로는 순창 IC를 잇는 순창 대표 도로로 금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이 밀집돼 있고 상권이 발달, 유통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순창 IC를 나오면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도로여서 순창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관 개선으로 '클린 순창'의 이미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천변 경관 조명과 어울리는 야간 조명 설치와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순창을



순창군이 총 39억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읍 중앙로 일대. <순창군 제공>

대표하는 명품 도로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며 "클린 순창에 걸맞은 중앙도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농협 보성군지부, 두원산업 박선천 대표 명예이장 위촉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지부장 서희수)는 최근 벌교 박석마을에서 '명예이장'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마을주민 20여 명과 지역 농협 조합장, 벌교읍장 등이 참석해 두원산업개발 박선천 대표를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명예이장은 소속 임직원들을 마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안부전화하기,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 농산물홍보, 문화공

동체 조성 등의 운동을 펼쳐나간다.

박선천 대표는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기업간의 교류로 마을의 활성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예이장 운동은 기업 CEO,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해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마을의 활력과 숙원사업을 이뤄 나가는 운동이다.

/벌교=김윤성 기자 kim0686@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운영

국비 등 13억 들여 민간어린이집 2곳 매입 추진

익산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국·도비 포함) 1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하나금융그룹이 제공하는 사업비 9억원을 포함해 국·도비2억원, 시비1억원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곳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리모델링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이들 어린이집은 하반기 리모델링을 거

쳐 2020년부터 국공립으로 전환되며 135명의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유 예산(국고 지원 등 포함)과 하나금융그룹 사업 지원금을 합해 우수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5월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협약식에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해 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사업으로 저출산 사회적 문제해결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해 아이가 행복하,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1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 옛 두동초교 양조장 시설 탈바꿈

시,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 추진

학생들이 떠난 남원 지역의 옛 두동초등학교<사진>가 양조장으로 변신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송동면에 소재한 옛 두동초등학교를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전북도는 농촌 지역의 흥몰로 버려진 방앗간과 폐교 등을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재생하고자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것이다.

이에 시는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이 프로젝트에 옛 두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을 응모·선정됐다.

이 사업은 옛 두동초등학교를 양조장과 발효 아카데미가 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물 1층에는 발효·양조시설과 청년창업 수제맥주 공유 제조시설 등을,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전통발효 아카데미 공간을 조성한다.

운동장에는 캠핑장과 주차장을 만들어 수제맥주마니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루쯤 잠을 자면서 발효체험도 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락 페스티벌과 청년음악회 등 계절별 축제를 추진해 남원 전통명주를 홍보하고 수익창출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연내 기반시설을 완성한 뒤 마을주민과 청년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을 맡긴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이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군, 양파 수급조절 소비촉진운동 편다

고창군이 최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양파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만생종 양파가 과잉 생산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 전체가 참여해 소비촉진 운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30t의 양파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교육지원청, 경찰서, 농협 등 유관기관 및 산하 단체 등과 함께 양파 소비 및 판매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고창군은 오는 26일을 '양파데이'로 정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기관단체와 함께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집하장에서 대대적인 양파 팔아 주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양파는 품질이 좋은 종자를 사용하고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병충해에 강하며 맛이 매우면서도 단맛이 나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고추 바이러스 감염 차단 영농지도

정읍시는 고추 바이러스 감염 차단과 방제를 위한 영농지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농지도는 고추 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인 '칼라방'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를 비롯해 1200여종의 식물이 감염되고 있으며 주로 총채벌레를 통해 전염된다.

올해의 경우 봄철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해 총채벌레 발생이 빨라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농가가 증가하고 있

다.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내야 한다.

정읍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끈끈이 트랩을 활용한 예찰과 성분이 다른 세 종류의 약제를 선택해서 4-5일 간격으로 번갈아 방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방제 약제 살포 시 약제가 고추 전체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뿌려줄 것을 주문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